

# 국토이슈리포트

제 29호

2020년 12월 30일

| 발행처 | 국토연구원 www.krihs.re.kr | 발행인 | 강현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 시공간 변화로 살펴본 지역별 치킨집의 흥망성쇠 치킨집 개·폐업으로 보는 지역별 특성 변화

### 요약

#### ■ 자영업의 위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체감경기 지표, 치킨집

- 우리나라는 저성장과 고용 악화 등으로 자영업 신규 진입이 계속되고 있으나, 경쟁과다 및 미숙련 등 이유로 높은 폐업률을 기록하며 위기를 겪고 있음
- 치킨집은 자영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업종 중 하나로, 지역의 민생경제 모니터링을 위한 체감지표로서 활용 가능
- 지역별 치킨집 개·폐업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역별 자영업의 시간적 생멸 변화 및 특성 진단

#### ■ 지난 20년간 치킨집의 흥망성쇠

- 2000~2019년까지 지난 20년간의 치킨집 개·폐업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은 개업이 급증, 200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중반은 개·폐업 건수가 비슷한 정체 상태, 2010년대 후반부터는 폐업이 개업을 앞지르는 쇠퇴 단계에 진입
- 해당 기간의 실업자 수 추세와 비교하여 보면, 2008년, 2013년 등 경제위기 및 실업자 수의 급증 시점과 치킨집 개업 증가 시기가 일치

#### ■ 치킨집 개·폐업의 지역적 특성

- 2019년 현재 전국적으로 치킨집 업종은 침체되어 있으나, 개업 및 폐업 수, 인구 대비 업체 수 등으로 지역의 특성을 구분하면, 도시 지역은 경쟁·도태 유형, 농촌 지역은 안정 유형으로 분류
- 시간 흐름에 따른 지역별 유형 변화 양상을 보면,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차이가 극명하며, 도시 지역 중에서도 구도심과 신도시, 지방 중소도시의 패턴이 다름  
- 구도심은 경쟁·도태, 신도시는 부족·성장, 지방 중소도시는 도태·쇠퇴 유형

#### ■ 시사점

- 지역의 경제적 활력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공식 통계데이터뿐만 아니라 치킨집 개·폐업 등 국민이 체감 가능한 지표를 발굴·활용하여 생활경제를 모니터링할 필요
- 소상공인, 자영업의 생멸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고, 지역맞춤형 경제 활성화 정책 지원방안 모색 필요

오창화 전문연구원  
이영주 국토시물레이션센터장

1

자영업의 위기, 치킨집으로 들여다보다

대한민국, 자영업의 위기에 직면하다

- 📍 우리나라는 ‘자영업 공화국’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상황으로, 자영업 관련 지표도 ‘위험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OECD 2017년 보고서(OECD 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형 서비스업체(1-9인) 수는 총 232만 1,477개로, 회원국 중 5위를 기록하였으며, 전체 고용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7.4%로 4위를 기록
  - 자영업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창업이 쉽고, 퇴직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실직을 한 노동자 진입이 많으며, 경기 악화 및 실업 등으로 인한 생계형 자영업(비자발적) 진입(박창귀 2016)도 많음
- 📍 자영업자는 내수 부진 및 치열한 경쟁, 미숙련 등으로 인하여 위협을 겪고 있으며, 폐업률도 높음

  -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은 2007년 15.78%로 최고값을 기록했으며, 이후로 소폭 감소하여 10% 초반을 유지(2018년 기준 10.98%)(한국세정신문 2019)
  - 특히, 음식 업종의 폐업률은 2018년 기준 18.1%를 기록해 개인사업자의 7대 주요업태<sup>1)</sup>중 가장 높음

〈표 1〉 개인사업자 및 음식업종 폐업률(2007~2018년)

(단위: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개인사업자 폐업률	15.78	14.38	13.84	13.77	14.03	13.62	13.02	11.94	11.13	12.18	11.67	10.98
음식업 폐업률	24.3	22.7	22.1	22.3	22.3	21	19.9	19	18.1	19.3	18.8	18.1

출처: 한국세정신문 2019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치킨집은 우리나라 자영업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표 업종

- 📍 치킨은 자영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창업 업종 중 하나로, 상대적으로 창업이 쉽지만 매출액은 타 업종과 비교해 낮은 편으로 생존이 쉽지 않음

  - 치킨집은 다른 외식업종에 비해 창업비용이 낮아(평균 5,725만 원, 프랜차이즈 업체 창업 기준) 창업이 용이하지만, 단위면적(3.3m<sup>2</sup>)당 매출액은 928만 원 수준으로 프랜차이즈 업종 중 커피전문점(803만 원) 다음으로 낮음(김태환 2019)
  - 통계청 2017년 서비스업조사 프랜차이즈 통계에서도 치킨집의 업체당 평균 영업 매출액은 1억 4,949만 원으로 16개 프랜차이즈 업종 중 가정용 세탁(8,502만 원), 주점(1억 4,307만 원) 다음으로 적음(통계청)
- 📍 치킨집은 자영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업종 중 하나로, 지역의 민생경제 모니터링을 위한 체감지표로서 활용이 가능함

  - 치킨집의 개·폐업 자료를 활용하여 시대별·지역별 치킨집 개·폐업 변화 및 특징 등을 분석하고 지역별 자영업의 시간적 생멸 변화 및 특성을 진단
  -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개방(localdata.go.kr) 일반음식점(2020년 3월 기준) 중 업태구분이 ‘호프/통닭’, ‘통닭(치킨)’인 업체만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

1)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운수창고업,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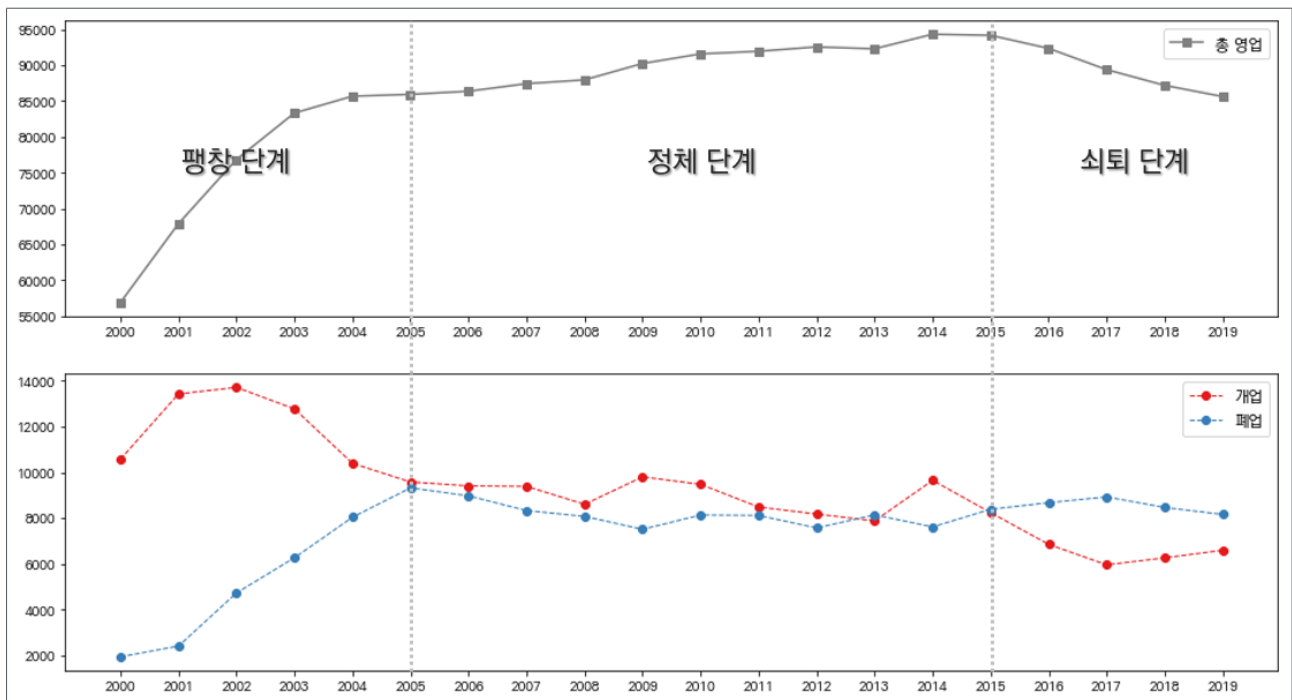
## 2 시기별 치킨집 개·폐업의 변화

### 지난 20년간 치킨집은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 2000~2019년까지 지난 20년간 치킨집 개·폐업 데이터로 연도별 추세 분석(<그림 1> 참조)

- 2019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영업 중인 치킨집은 총 8만 5,320개(개업 23만 8,229개, 폐업 15만 2,909개)이며, 지난 20년의 치킨집 개업은 17만 8,600개, 폐업은 13만 9,629개로 단순 폐업률은 78.2%
- 총 영업업체 수로 보았을 때, 2000년대 초반은 치킨집의 수가 급증하는 팽창 단계, 200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중반 사이에는 개·폐업의 수가 비슷한 정체 단계, 2010년대 후반부터는 폐업의 수가 개업을 역전하는 쇠퇴 단계의 변화를 보임<sup>2)</sup>

<그림 1> 전국 치킨집의 개·폐업 추세(2000~2019년)



출처: 저자 작성.

📍 개업이 가장 많았던 2002년(1만 3,707건) 이후 개업 건수는 지속적으로 정체-감소의 추세이며, 폐업이 가장 많았던 2005년(9,319건) 이후는 지속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폐업 건수 기록

- 팽창 단계의 끝이었던 2005년을 기점으로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이후 치킨집 영업 수의 큰 성장을 보이지 않음

📍 동 기간의 실업자 수 추세와 함께 살펴보면(<그림 2> 참조), 2009~2014년의 개업 급증과 실업자 수 급증이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데, 이는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2013년의 여러 대기업의 부도 사태 등 고용위기로 인한 경향으로 추정

2) 2014년에 총 영업업체 수 9만 4,323개를 정점으로 점차 영업업체 수가 줄어들어, 2019년에는 8만 5,320개로 기록됨.

〈그림 2〉 전국 치킨집 개·폐업과 실업자 수 추세 비교



출처: 저자 작성.

### [팽창 단계] 2000년대 중반까지는 영업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팽창 추세

- 2000년대 초중반(2000~2005년)에 매년 1만여 개 이상, 월드컵이 개최되었던 2002년에는 무려 1만 3,707개의 치킨집이 전국적으로 개업하여 지난 20년 중 최고치를 기록
  - 2000년에 영업 중이었던 치킨집은 5만 6,850개였으며, 팽창단계의 끝 무렵인 2005년에는 8만 5,931개로 5년간 약 51.2% 증가
  - 폐업 건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05년부터 폐업 건수와 개업 건수가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면서 정체 단계로 진입

### [정체 단계] 2000년대 중반 이후로 개업과 폐업 건수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정체 단계에 진입

- 2005년에서부터 최고점이었던 2014년 사이 치킨집의 총 영업업체 수는 약 9.77% 증가
  - 정체 단계에서 총 영업업체 수는 8만 5천~9만 5천여 개에 머물고 있으며, 개·폐업은 8천~9천여 건에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음
  - 개업과 폐업이 정체를 보이다 2014년에 개업이 다시 한 번 고점에 도달한 후, 쇠퇴 단계로 진입

### [쇠퇴 단계] 2010년대 중반 이후 폐업 건수가 개업 건수를 앞지르며 총 영업업체 수가 감소

- 처음 폐업이 개업을 앞지른 것은 2013년으로(폐업 8,143건, 개업 7,880건), 2015년 이후는 지속적으로 폐업이 개업보다 많아짐
  - 2014년을 기점으로 개업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2017년에 5,960건을 기록하며 최저치에 도달하였으며, 2014~2019년까지 치킨집 업체 수의 증가율은 약 -9.22%
  - 전반적으로 폐업 건수의 극적인 증가는 없었으나, 개업 건수의 꾸준한 감소로 인하여 쇠퇴 추세가 나타남

# 3

## 지역별 치킨집 개·폐업 특징: 우리 지역의 치킨집 현황은?

### 우리나라에서 가장 치킨집이 많은 지역은?

2019년 현재 영업 중인 치킨집이 가장 많은 지역은 부천시(2019년 기준 1,648개 영업)이며, 인구 대비 치킨집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라남도 여수시(2019년 기준 업체 1개당 인구수 약 275명)

〈표 1〉 전국의 지역별 치킨집 개·폐업 상위 10개 지자체

순위	개업		폐업		총 영업 업체 수		업체 한 개당 인구수	
	지자체	개수(개)	지자체	개수(개)	지자체	개수(개)	지자체	인구수(명)
1	경기도 부천시	8,118	경기도 부천시	6,470	경기도 부천시	1,648	전라남도 여수시	275.1
2	대전광역시 서구	3,544	광주광역시 북구	2,780	대전광역시 서구	1,202	부산광역시 중구	279.4
3	광주광역시 북구	3,48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66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51	전라남도 목포시	282.4
4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3,430	인천광역시 부평구	2,366	전라남도 여수시	1,023	충청북도 음성군	282.7
5	인천광역시 부평구	3,150	대전광역시 서구	2,342	광주광역시 광산구	943	경상북도 안동시	293.7
6	인천광역시 남동구	2,999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2,122	광주광역시 서구	940	광주광역시 동구	309.0
7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2,797	인천광역시 남동구	2,122	경기도 평택시	926	광주광역시 서구	318.2
8	서울특별시 마포구	2,779	서울특별시 강동구	2,074	경기도 화성시	912	전라남도 순천시	322.1
9	서울특별시 강동구	2,682	서울특별시 마포구	1,880	경상남도 진주시	900	강원도 삼척시	324.8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2,596	경상북도 구미시	1,852	서울특별시 마포구	899	경상북도 울진군	335.5

출처: 저자 작성.

### 치킨집 개·폐업과 인구수로 보는 지역별 특성

- 지역별 치킨집 개·폐업 추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유형화 분석을 수행

  - 지난 20년 간 250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치킨집 개·폐업 건수, 업체 한 개당 인구수를 기준으로, 3개 지표의 경향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별 치킨집 분포 특성 구분
- 치킨집 개·폐업 수 및 인구규모 특성을 고려하여 8개 유형의 지역으로 특성 구분

  - ① 치킨 먹고 싶은데 치킨집이 없어--- : 부족(개업 수 少, 폐업 수 少, 업체 한 개당 인구수 多)

    - 인구에 비해 지역 내 업체 수가 적어 업체 한 개당 인구수가 많은 곳으로, 개·폐업 변화가 크지 않은 상태
    -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며, 일부 도시 지역은 인구에 비해 업체 수가 적고 변동성이 적어 '부족'으로 관측
  - ② 자고 일어나니 새 치킨집이 생겼네! : 성장(개업 수 多, 폐업 수 少, 업체 한 개당 인구수 多)

    - 새로 개발되거나 창업기회가 큰 신도시 등이 해당되며, 개업 건수가 많고 지역 내 해당 업종의 성장 지역
  - ③ 한 집 건너 또 한 집이 치킨집 : 포화(개업 수 多, 폐업 수 少, 업체 한 개당 인구수 少)

    - 개업 건수는 많으나 업체 한 개당 인구수가 적어 지역 내 업체가 포화상태에 도달, 신규 개업의 부담이 큰 상태

## ④ 치킨집이 있던 자리에 또 다른 치킨집이라니... : 경쟁 (개업 수 多, 폐업 수 多, 업체 한 개당 인구수 少)

- 개·폐업 건수가 많지만 이미 많은 업체 수로 인하여 업체 한 개당 인구수는 적은 상태로, 과밀로 인한 경쟁이 일어나는 상태

## ⑤ [임대 문의: 010-XXXX-XXXX] : 도태 (개업 수 少, 폐업 수 多, 업체 한 개당 인구수 少)

- 경쟁으로 인해 개업 대비 폐업 건수가 많아지면서 지역 내 업체 수가 줄어드는 상태
- 도태 유형과 쇠퇴 유형에 속하는 지역은 업체 수의 순 증감(net)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총 영업업체 수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임

## ⑥ 그 많던 치킨집이 어디로 갔지? : 쇠퇴 (개업 수 少, 폐업 수 多, 업체 한 개당 인구수 多)

- 폐업 건수가 많아 지역 내의 업체 수는 줄어들어 업체 한 개당 인구수가 많아지는 쇠퇴 상태

## ⑦ 단골집만 남았어요! : 안정 (개업 수 少, 폐업 수 少, 업체 한 개당 인구수 少)

- 업체 한 개당 인구수가 적으며, 개·폐업의 변화도 많지 않아 균형을 이루는 상태로, 일부 농촌 지역이 해당

## ⑧ 나도 저기 치킨집 차릴 수 있지 않을까? : 불안정 (개업 수 多, 폐업 수 多, 업체 한 개당 인구수 多)

- 개업 건수와 폐업 건수 모두 많고, 인구도 많아서 자영업 신규창업의 진입장벽이 낮은 지역

## 📍 2019년 현재 우리나라의 치킨집 흥망성쇠 단계 지도(&lt;그림 3&gt; 참고)

- 수도권과 광역시,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경쟁 유형, 도태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지역은 쇠퇴 유형에 해당
- 대부분의 농촌 지역은 부족 유형과 안정 유형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 유형에 따른 특성이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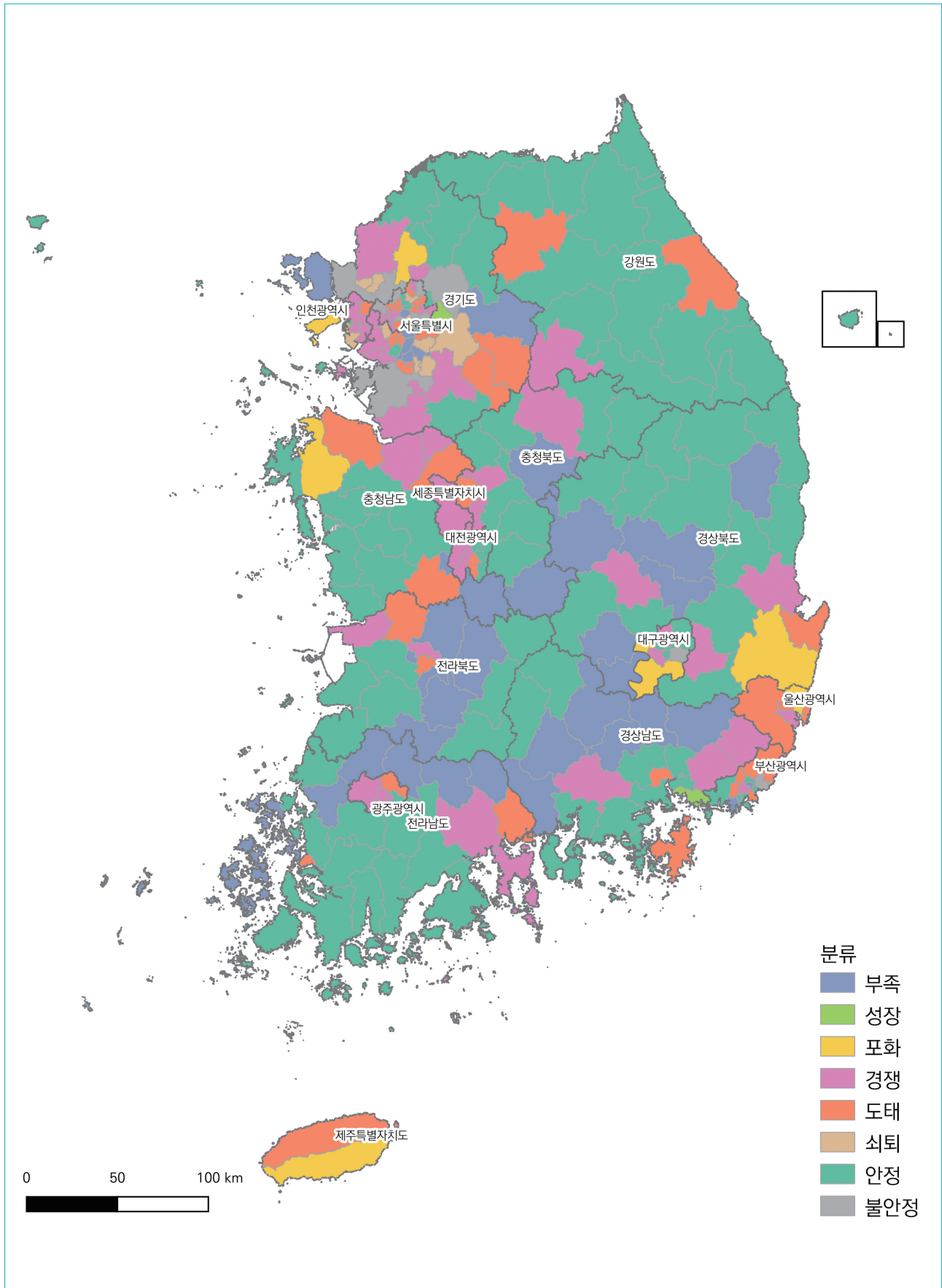
## 📍 시기별 지도와 비교하면,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변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lt;그림 4&gt; 참고)

- 2000년에는 대부분의 지역이 부족 유형이었으며, 일부 도시 지역에서 포화-경쟁 유형을 보이고 있음
- 농촌 지역은 2010년, 2019년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부족 유형에서 안정 유형으로 변화한 지역이 많음
- 도시 지역은 2010년에 경쟁 유형으로 많이 변화하였으며, 일부 지역은 도태 유형으로 진입
- 2019년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쇠퇴 유형에 접어드는 지자체가 나타나며, 도태 유형에 접어든 지역도 확대

## 📍 시계열 변화 분석결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인구 대비 치킨집의 영업 수는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며, 도시 지역은 경쟁과 도태 유형, 농촌 지역은 안정 유형으로 양분되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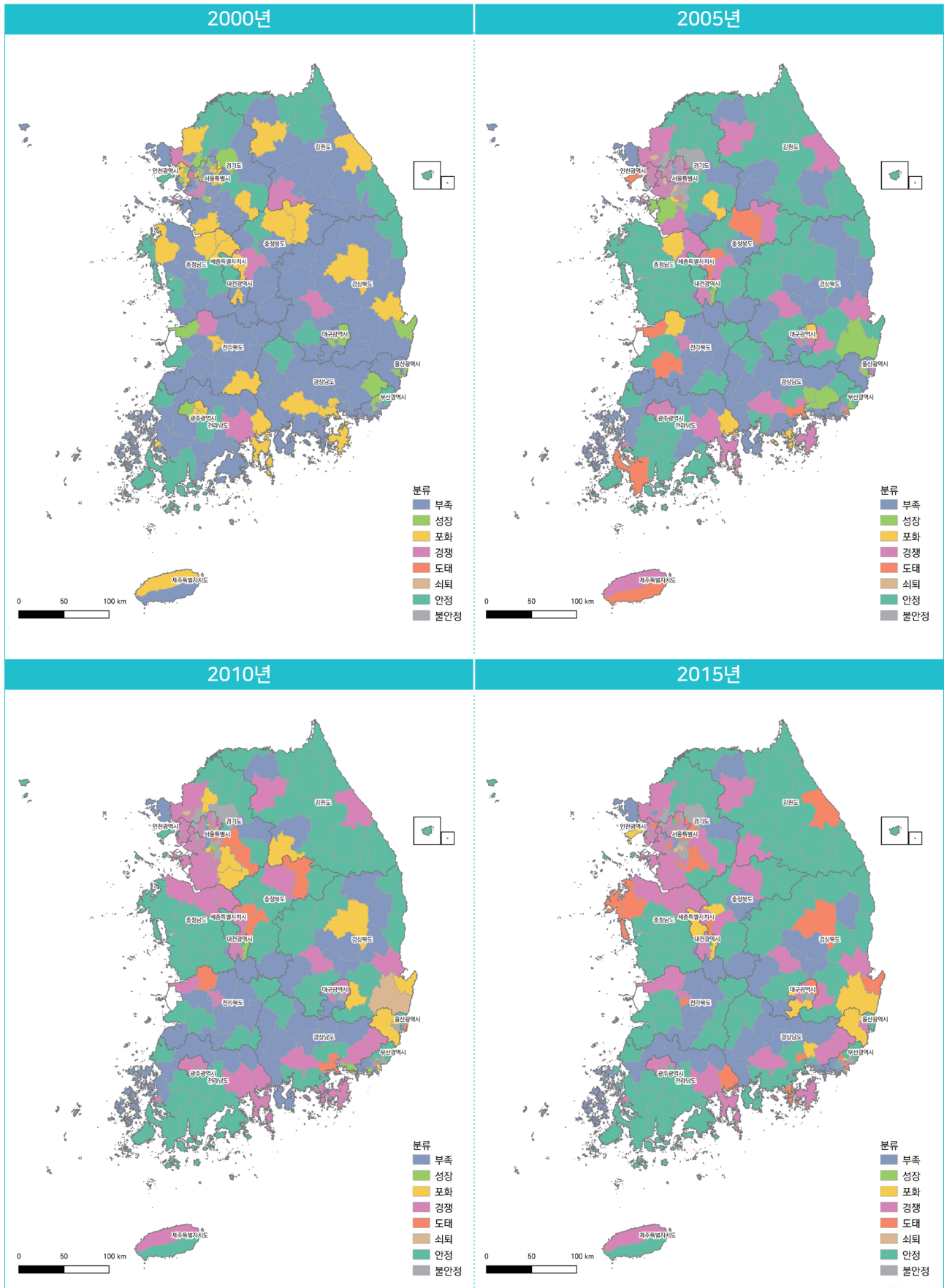
- 도시 지역은 개·폐업 건수가 큰 변동을 보이며 시기별 유형이 급변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특히 2000년대 초반에 포화 유형을 보이던 지역이 경쟁, 도태 유형으로 변하여 폐업의 비중이 커짐
- 농촌 지역은 반대로 개·폐업 건수의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2000년대 초반에 부족 유형에서 2010년대 후반 안정 유형으로 바뀌는 경향을 주로 보이며, 이는 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하여 업체 한 개당 인구수가 줄어들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그림 3〉 치킨집 개·폐업으로 보는 지역 특성(2019년 기준)



출처: 저자 작성.

〈그림 4〉 치킨집 개폐업으로 보는 시기별 지역 특성(2000~2015년, 5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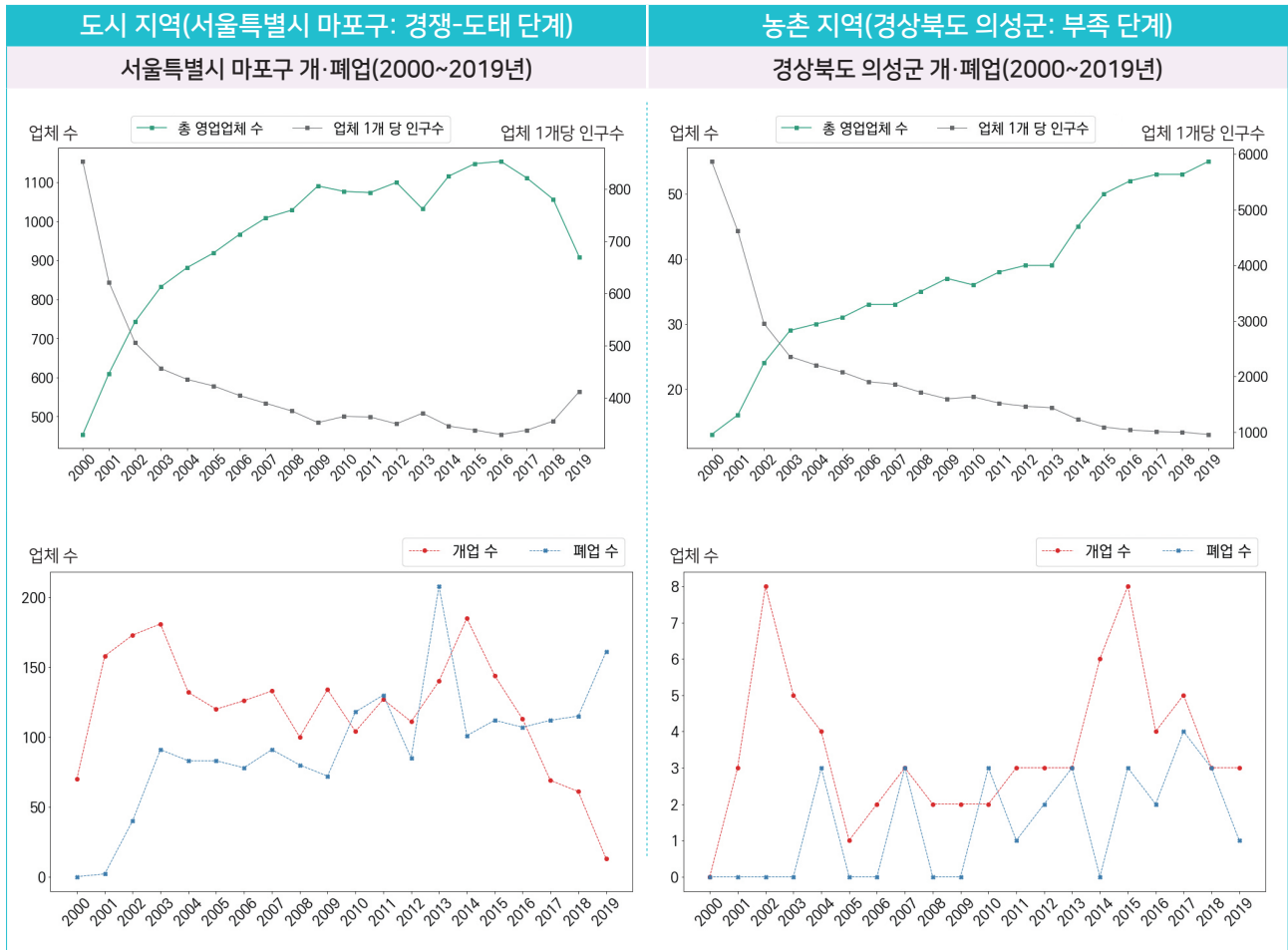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역별 치킨집 개·폐업 특성 변화

- 📍 치킨집 개·폐업 추세는 지역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이며, 시간의 변화에 따라 지역의 개·폐업 유형도 변화
- 📍 도시와 농촌을 비교하면, 개·폐업 건수에 따라 총 영업업체 수 변동의 차이가 있음(<그림 5> 참고)
  - 도시 지역은 개업과 폐업이 모두 많으며, 업체 한 개당 인구수가 적은 분포를 보이는 지자체가 많음
  -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지속적으로 업체 수가 증가하다가 정체를 겪은 뒤 점차 줄어드는 흐름을 보임 (<그림 5> 좌측)
  - 이에 비해, 농촌 지역인 경상북도 의성군은 개업 건수와 폐업 건수가 0~10개 사이에서 큰 변화가 없으며, 업체 한 개당 인구수도 많은 편에 속함(<그림 5> 우측)
  - 의성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업체 한 개당 인구수가 줄어드는데, 업체의 개·폐업 변화가 크지 않은 추세에서 업체 한 개당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은 지역 내 총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

<그림 5>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의 치킨집 개·폐업 추세 비교



출처: 저자 작성.

## 지난 20년간 치킨집의 개·폐업 변화로 살펴보는 지역 특성

📍 개·폐업 건수의 시계열적 변화를 바탕으로 이하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지역 특성을 구분(<그림 6> 참고)

### ① 지속적인 안정 지역

- 안정 유형에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지역으로, 인제군뿐만 아니라 많은 농촌 지역이 지난 20년간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강원도 인제군 등)

### ② 성장 지역(부족→성장)

- 농촌이었던 지역이 개발을 통해 성장하면서 치킨집도 함께 성장 유형으로 진입하는 지역으로, 강서구의 경우 2008년부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인해 성장하는 지역(부산광역시 강서구 등)

### ③ 경쟁진입 지역(성장→포화→경쟁)

- 지역 내 업종이 성장하던 추세에서 폐업이 증가하는 경쟁 유형으로 변화하는 지역(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등)

### ④ 경쟁을 지나 도태 단계까지(경쟁→도태)

- 경쟁 유형을 지나 도태 유형에 들어서고 있는 지역으로, 많은 구도심 지역이 경쟁을 지나서 도태 유형에 접어드는 지역에 속함(광주광역시 동구 등)

### ⑤ 활력이 줄어들고 있는 지역(도태→쇠퇴→안정)

- 지역 활력의 감소로 인해 치킨집 영업 수가 감소하는 지역으로, 여러 지방 중소도시에서 도태에서 쇠퇴 유형을 지나 안정 유형까지 진입(전라북도 김제시 등)

### ⑥ 단기간에 급변하는 지역(부족→성장→경쟁→도태)

- 지난 20년간 부족 유형에서 도태 유형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치킨집 개·폐업 특성이 급변하는 지역(강원도 속초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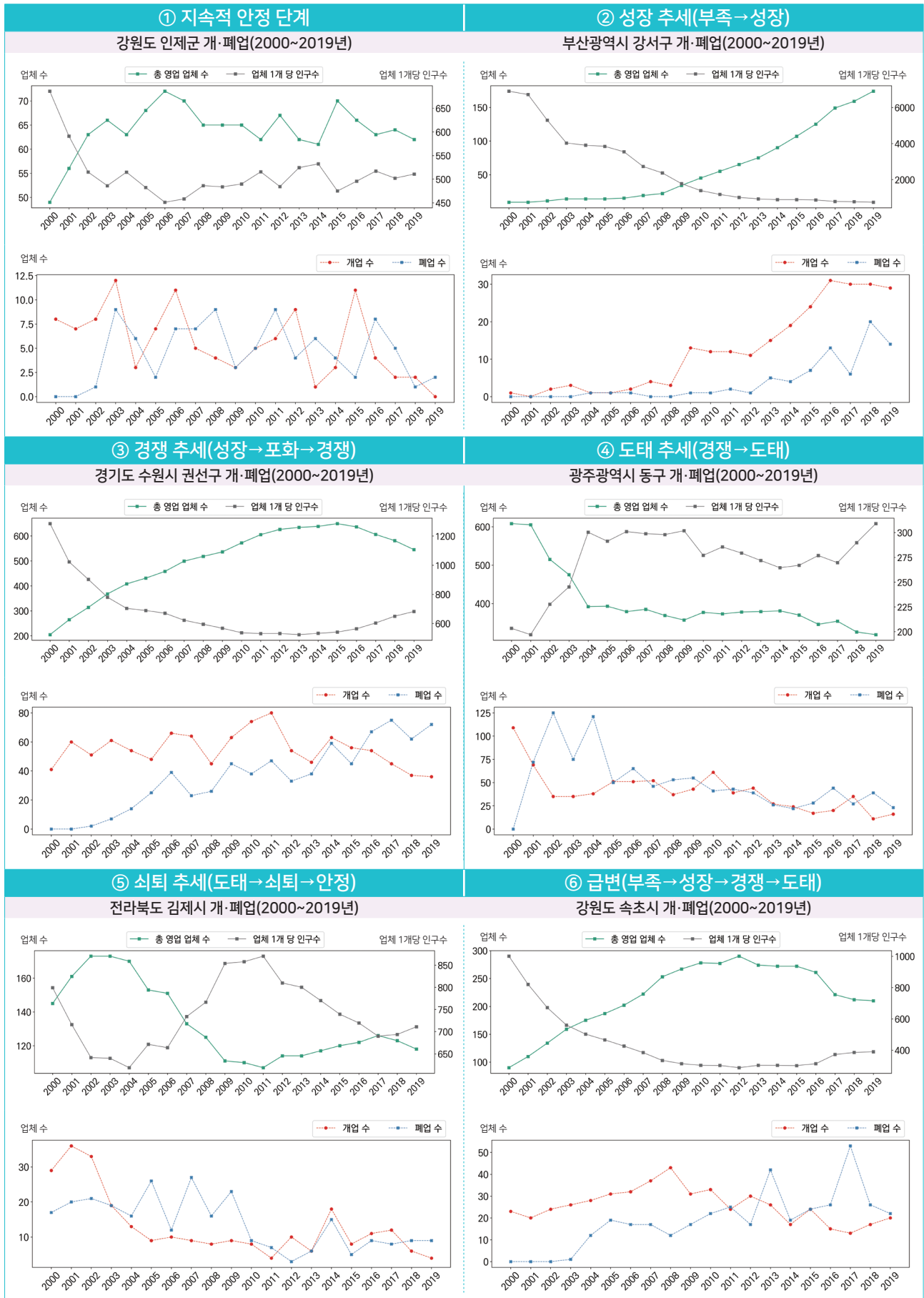
📍 농촌과 도시 지역의 차이도 확연히 드러나지만, 도시 지역 내에서도 변화 양상은 다르게 나타남

- 구도심과 신도시, 지방 중소도시의 양상이 다르며, 이는 해당 지역의 경제 활력 같은 현재 상황이 반영
- 구도심의 경우 이미 경쟁 유형을 지나 도태 유형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고, 신도시는 개발에 따른 성장 지역으로 치킨집 개업도 성장 유형을 보이며, 지방 중소도시는 지속적인 활력 감소에 따라 도태에서 쇠퇴 유형까지 진입하는 경우가 다수 나타남

📍 이는 치킨집의 지역적 생멸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의 현재 상황과 특성에 맞는 활성화 정책이 필요함을 의미

- 많은 지방도시와 구도심 지역은 도태 유형에 진입하고 있으며, 향후 쇠퇴 유형으로 진입하거나 안정 유형으로 변화되면 지역의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도 있음
- 일부 지역은 지역경제 활력감소로 개·폐업 수의 변동이 두드러지지 않은 안정 유형에 머물러 있으므로, 지역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 추진이 필요

〈그림 6〉 지난 20년간 치킨집 개·폐업 변화의 유형별 비교



출처: 저자 작성.

## 4 시사점과 정책제언

### 시사점

- ④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물경제 지표로서 치킨집의 개·폐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의 자영업자 이슈 진단 및 생활경제 모니터링이 가능함
  - 공공에서 개방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 중, 소상공인의 개·폐업과 같이 지역경제 활력도 등 민생경제 모니터링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발굴 및 적극적 활용 필요
  - 이번 리포트에서는 시군구의 공간단위를 사용했으나, 읍면동 등 소지역 공간단위로 지역의 자영업자 이슈 진단 및 다양한 경제 현황 파악이 가능
- ④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드러나는 지역 경제의 현황과 특성을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 필요
  - 치킨집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도시-농촌 지역, 구도심-신도시 등 지역 유형에 따른 자영업의 특성과 시간적 변화 차이 등을 통해 지역경제 이슈 발굴이 가능
  - 치킨집 개·폐업 데이터와 인구수 등 지역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융합 활용함으로써 지역 유형별 자영업자의 특성·변화 경향과 현 상태를 파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정책제언

- ④ 기존의 공식 통계데이터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의 생멸 데이터 등 지역의 생활경제 데이터 발굴 및 활용 확산 필요
  - 지역 현황 분석 및 모니터링을 위한 다양한 공공 데이터의 발굴·수집·구축·제공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 소상공인의 개·폐업 현황뿐만 아니라 개인 신용카드 소비 데이터, 업체별 매출액 데이터 등 지역 경제 관련 민간데이터의 발굴 및 정책적 활용 확대 방안 모색 필요
- ④ 지역의 현안과 특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활성화 정책 수립 지원
  - 소상공인, 자영업의 생멸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고, 지역맞춤형 경제 활성화 정책 지원
  - 시계열 분석을 통해 지역의 현안을 진단할 뿐만 아니라, 향후 관련 정책의 효과 모니터링에도 활용 가능

### 참고문헌

- 김태환. 2019. KB 자영업 분석 보고서 - 치킨집 현황 및 시장여건 분석. 서울: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 박창귀. 2016. 우리나라 자영업의 과도기적 특성 연구. 경제연구 34권, 1호: 163-191.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17년 서비스업조사 프랜차이즈 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2020년 12월 24일 검색).
- 한국세정신문. 2019. 김경협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 10.98%... 2005년 이래 최저". 10월 7일.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1665> (2020년 12월 24일 검색).
- OECD. 2017.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7. Paris: OECD.

**오창화**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전문연구원(cwoh15th@krihs.re.kr, 044-960-0595)

**이영주** 국토시물레이션센터장(leeyj@krihs.re.kr, 044-960-0566)